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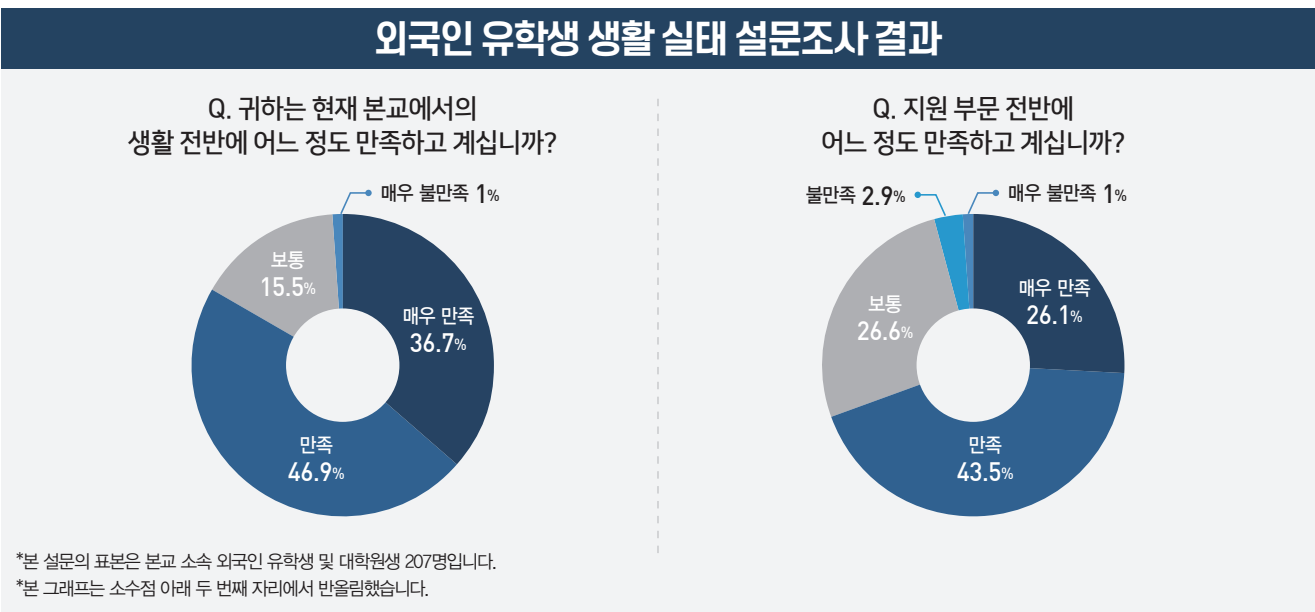
유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 긍정 반응 다수

본지는 유학생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한성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생활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됐으며, 본교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원생 20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대학 생활 전반을 비롯해 ▲학업 ▲일상생활 ▲지원 등의 부문으로 나뉘 본교에서 수학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세분화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지원 부문의 경우 프로그램, 언어로 더 구분해 진행했다.

설문에 참여한 83.6%의 학생들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 '귀하는 현재 본교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36.7%)', '만족(46.9%)'의 응답이 기록됐다. 만족의 이유는 '학업 부문(64.2%)'이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부문(41.6%)', '지원 부문(24.3%)'이 그 뒤를 이었다. 부티뜨어이(글로벌경영 25) 학생은 "캠퍼스가 깨끗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본교에서의 생활 전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일부 드러났다. 불만족한 부문으로는 '일상생활 부문(100%)'이 집계됐다. 응웬훤찌응웬(국제이주협력 26) 학생은 "학교생활 중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창구를 모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학업 부문에 대해서는 81.1%의 학생이 만족했다. '귀하는 현재 본교에서의 학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33.3%)', '만족(47.8%)'으로 나타났다. 만족의 이유는 '교수 및 학우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서(62.5%)',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61.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부티뜨어이 학생은 "한국어 실력과 전공 역량



개교 54주년 기념행사 개최

“교육·연구·글로벌 역량의 변화 만들 것”



사진 기자 : 김가현 기자

▲수상자와 대학본부 관계자가 개교 54주년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54주년 개교기념식이 미래관 DLC에서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포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문동후(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총장, 김진환 교학부총장, 김지현 대외협력 부총장 등 교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눠 거행됐다. 1부는 ▲참석 내·외빈 소개 ▲연혁 보고 ▲장기근속자 포상 ▲한성발전공헌상 포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내·외빈 및 참석 구성원 점심 식사로 구성됐다. 장기근속자 포상은 이은희(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박근칠(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정성훈(AI응용학과) 교수 등 4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한성발전공헌 포상은 신은정(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정옥환(글로벌패션산업학부) 교수, 박지영(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유예영(ICT 2) 학생 등 총 69명이 수상했다.

문 이사장은 이번 기념식에서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개교 54주년을 맞은 오늘이 과거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본교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연구·글로벌 역량을 아우르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성발전공헌 포상 수상자인 유 학생은 “본교 공식 홍보대사 ‘하랑’ 활동을 하면서 입시 관련 룬품 영상을 제작했다”며 “영상 이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희원 기자 huiwonjang7@gmail.com



사진 기자 : 김가현 기자

▲이창원 총장으로부터 포상을 수여받는 한성발전공헌상 수상자

가을하늘 아래 성북구의 기억을 담다



사진 기자 : 김나연 기자

▲‘미래의 나에게’ 버스를 운영 중인 문헌정보학전공 학생들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제6회 성북마을기록전시(이하 성북마을전시)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개최됐다. 이강현(성북문화원) 행사 관계자는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상보다 활기찬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성북마을전시는 성북구의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의 사진 전시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재조명하고자 성북구청·성북문화원에서 주최 및 주관한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성북마을전시 오픈행사가 다양한 체험 부스와 함께 진행됐다. 오픈행사는 ▲아카이브 전시 ▲고개미로 ▲주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성북구 일대의 변화를 기록하는 사진과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고개미로는 성북구 내 주요 장소를 미로 형태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사진 기자 : 김가현 기자

▲참여자가 사방치기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 기자 : 김가현 기자

▲시민들이 '아카이브' 전시를 관람 중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분교 문헌정보학전공 부스를 비롯해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성북점자도서관 등 총 6개 부스가 운영됐다. 부스는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분교 문헌정보학전공 부스에서는 ‘미래의 나에게’라는 주제로 편지 쓰기 및 책갈피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다. 이외에도 공기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도 구를 만들거나 점자 키캡 만들기, 전통 방식으로 다이어리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문헌정보학전공 부스를 운영한 김유빈(인문 3) 학생은 “문헌정보학전공이 기록에 특화된 전공이기에 이와 관련해 마을의 기록과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에 함께 담아보자는 취지로 해당 부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께 부스를 진행한 정하을(인문 2) 학생은 “성북마을 기록전시라는 역사적인 기록 속에 한 장면으로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나연 기자 nayeonkimm@naver.com

2027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큰 세상을 배우다 가능성을 채우다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성대학교 대학원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 일반대학원(주간) |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무역학과 경제·부동산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과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공학계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예술학과 시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회화과
		예·체능계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아스포드콘텐츠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석사	인문계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예술학과 시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회화과
		사회계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공학계	한국어교육학과 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국제이주협력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융합예술학과 시용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회화과
		예·체능계	무용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아스포드콘텐츠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학과

● 모집인원은 각 학과 O명
● 비모집학과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정원외)임. [별도의 외국인유학생전형학과 모집요강 참조]

| 특수대학원(야간) |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경영대학원	석사	사회계	호텔관광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사회계	사회복지학과 사회안전학과 뷰티예술학과 뷰티산업융합학과
예술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안보전략학과 안보정책학과 국방전략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미래융합컨설팅학과
국방대학원	석사	사회계	부동산학과 자산관리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브랜딩&컨텐츠디자인학과*
부동산대학원	석사	사회계	글로벌시정경영컨설팅학과*
글로벌융합대학원	석사	예·체능계	

● 모집인원은 각 학과 O명
● 비모집학과 발생에 따라 모집 학과는 변경될 수 있음. 최종 모집 학과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확인 요망
●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정원외)임. [별도의 외국인유학생전형학과 모집요강 참조]

| 중소기업 계약학과(야간): 계약학과전형(정원외) |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박사	학과간 협동과정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석사	사회계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 계약학과전형 지원자는 [대학원홈페이지-입학안내-입학공지]에 게시된 별도의 모집요강을 통해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요망

| 원서접수 및 발표 |

- 원서접수기간 : 2026. 10. 14.(수) 10:00 ~ 10. 26.(월) 17:00
-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 - 입학안내 - 모집요강]에서 모집요강 확인 후
우웨이아플라이(http://www.uwayapply.com)를 통해 인터넷접수
- 면접고사 : 2026. 11. 14.(토) 10:00 * 학과(전공) 지원원내에 따라 면접고사 일정치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6. 12. 1.(화) 오후 대학원홈페이지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홈페이지 :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상상관 1002호)

불 꺼진 자리에 이름만 남은 대학부설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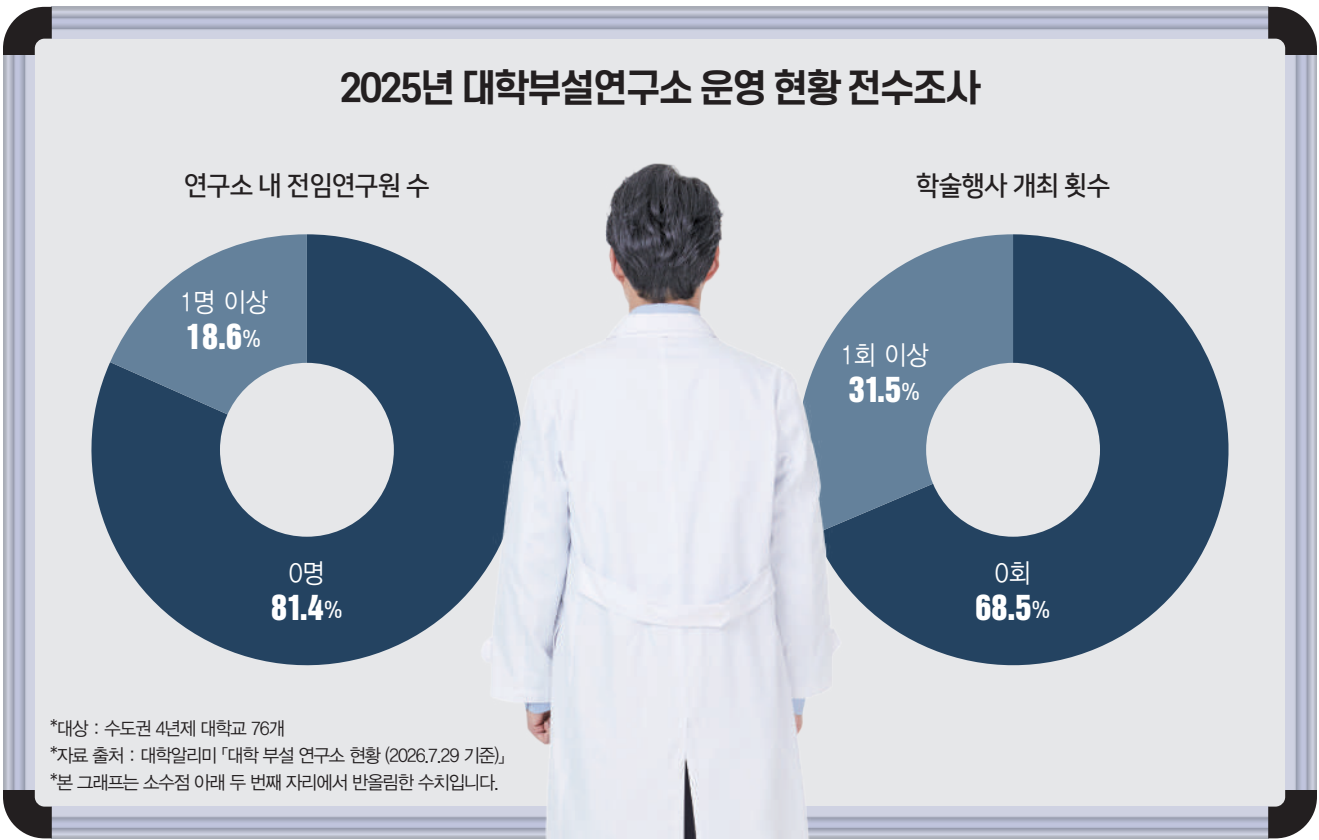
대학부설연구소(이하 부설연구소)가 ‘유령 연구소’로 전락하고 있다. 부설연구소는 학과(부), 학문 간 경계를 넘어 특정 분야나 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여러 전공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학술 연구의 중심이 돼야 할 부설연구소는 연구 인력과 재정 지원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이후 대학별로 연구 분야와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과제는 부설연구소의 연구 방향에 따라 발굴하거나 외부 연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설연구소는 학과나 학부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연구를 전문 연구 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부설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통해 선정 대학에 10년간 매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며 대학 내 대형·융복합 연구 거점 육성에 나섰다. 송혁기(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 원장은 “대학의 연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연구자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부설연구소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학 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부설연구소는 2025년 5,900개로 2020년 5,457개보다 약 8.1% 증가했으며, 전임연구원도 같은 기간 4,950명에서 5,494명으로 11.0%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설연구소가 연구활동 없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학술 연구’를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가 대학알리미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 76개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부설연구소 2,777개 중 한 해 동안 학술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부설연구소는 1,901개로 전체의 약 68.5%에 달



했다.

부설연구소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금 마련에 급급한 상황도 대다수다. 사술한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연구소 예산 중 교내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설연구소가 외부 지원사업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송 원장은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소에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학제간 연구라는 부설연구소의 본 목적과는 달리 학과 중심의 연구가 반복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교육부의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부설연구소의 연구가 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타 학과와 연계한 대형·융복합 연구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고(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교수는 “학과 위주의 연구가 반복될 경우 한 차원 이상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술 생태계 내에서 도태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도출된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못해 연구가 단절되는 한계도 확인된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학 부설연구소 소속 응답자 41.8%가 연구 종료 후 도출된 연구에 따른 성과를 활용하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연구 성과가 세미나 개최, 추가 연구 진행 등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해 연구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부설연구소가 방치되는 문제는 연구 활동의 점검·관리 규정이 미흡한 점에 기인한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활동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연구소를 관리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학별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나 부실 연구소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미흡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임 연구원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설연구소의 연구비 미지원 문제는 대학의 연구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 부설연구소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이 다른 분야의 연구 사업이나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보고 교수는 “연구소 지원 여부 및 규모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에서 연구 진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며 “이 같은 상

황이 지원 미흡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

부설연구소의 수동적인 인력 모집 구조가 학과 중심 연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설연구소는 교수가 소속 학과 학부생, 동료 교수 등을 추천·섭외해 연구 인원을 모집하는 구조를 띤다. 이로 인해 연구 인력이 기존 학과와 인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대학이 총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융합 연구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보고 교수는 “학과 내 연구인력은 연구소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 연구의 필요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후속 연구 단절 문제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후속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부설연구소의 설립·운영을 관리한다. 그러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후속 연구로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도에 발표한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과등록, 성과관리, 성과활용 주체 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설연구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된다. 연구소의 논문 게재, 학술행사 개최 등 연구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기간 실적이 미흡한 연구소에는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임 연구원은 “대학은 내실있는 연구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소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부설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부설연구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은 다른 사업들과 동시에 부설연구소 역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야 한다. 부설연구소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책정하고 대학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골자다. 송 원장은 “수주 사업별로만 지급되는 연구비 외에 대학별 연구진흥 기금을 지급해 부설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과 중심 연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별로 전담 연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꼽힌다. 연구소 설립 단계에서 여러 학과 소속 연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학과 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보고 교수는 “인력 배정을 제도화해 다양한 전공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연구 진행에 대한 지원만이 이뤄지는 현행 제도에 더해 정부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연구 종료 단계에서 성과 활용 계획과 후속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내 주체를 지정해 성과의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보고 교수는 “2차 연구 및 후속 활동의 계획 수립과 점검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설연구소가 실질적인 연구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양적 확대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설연구소의 수와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학술 활동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원장은 “학문 생태계의 활성화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설연구소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황기자의 외교 노트

선진국의 국제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며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번지고 있다. 신흥국은 경제적 발전과 산업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베트남, 인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흥국들의 경제가 일제히 흔들리며 한국의 대외 경제까지 파해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 불안의 충격이 한국 경제로 번지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장기화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한국은행의 '8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약 45억 달러 순유출됐으며 이러한 현상은 7개월 째 유지 중이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순유출은 국내에 유입된 금액보다 유출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채권금리가 상승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중국산 제품이 신흥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가 좁아지는 탓이다. 산업연구원(KIET)의 「국제무역구조 변화 동향과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에 따르면 베트남과 인도 등의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선 반면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제조업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나라에 속한다”고 전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수출입을 담당하는 물류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류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시점 사이에 통상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1,300원대로 급락하는 등 '넒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변칙적인 환율 변동으로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위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다. 양 교수는 “물류업계는 다양한 국가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

에 환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제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금융 불안의 심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현재 미국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30일 기준, 10년물 국제금리와 30년물 금리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 국제금리 상승은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다른 국가들에 그 여파가 확산되는 것이다. 장재철(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자국 통화의 약세 압박을 더욱 강화한다”며 “때문에 신흥국의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금리 상승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을 향한 관세 기조가 방어적으로 변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금리 상승으로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려는 유인이 커졌다는 것

이다. 이에 중국산 제품이 신흥국과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해당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무역 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며 “그로 인해 제조업이 후퇴하고 그 적자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고 전했다.

‘매도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 불안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제금리 상승으로 펀드들이 국채를 매도하면 시장에 국제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시장에 국제 매물이 많아지면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제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장 교수는 “매도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재무의 회사도 회사체 차환을 어렵게 한다”며 “구조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대외 발 금융 충격에 대비해 경제 안정화 조치 마련에 나섰다. 과도한 미국 국

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제 발행물량 축소와 긴급 바이백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평비(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의 공급량을 줄이는 것은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일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신흥국 금융 불안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현재 원화 강세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재정 신용도가 맞물려 다른 신흥국에 비해 금융 불안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점검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양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수출을 통해 타격을 받는 정도가 적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사진 : 황수민 기자



사진 : 황수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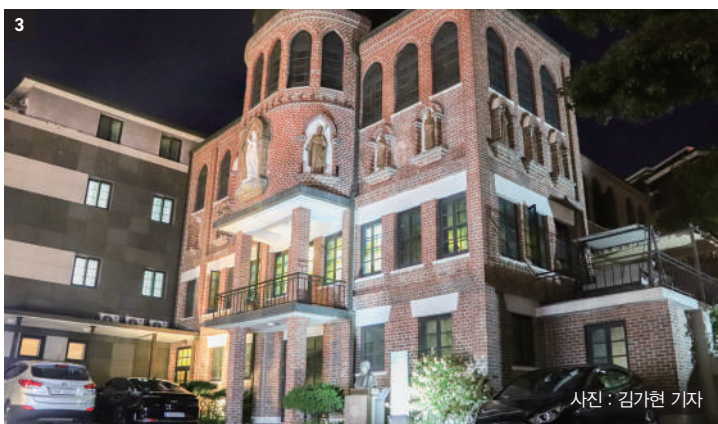


사진 : 김가현 기자



사진 : 김가현 기자



사진 : 김가현 기자



사진 : 김가현 기자

역사와 예술을 이은 성북의 밤

성북구에서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국가유산을 만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유산만 자그마치 142점에 달한다. 이처럼 풍성한 유산을 품은 성북동에서 지난 2·3일 '성북동 국가유산 야행(夜行)'이 열렸다.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리를 따라 성북동의 밤 정취에 흠뻑 빠져보자.

약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은 성북구에 남은 역사의 흔적을 보여준다. 조선의 도읍 한양을 둘러싼 성곽을 걷다 보면, 성곽 너머로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과 마주한다. 도성길을 따라 내려오면 조선 말기 부유층의 주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이종석 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즈넉한 가옥은 당대의 주거 양식과 생활상을 전한다. 인근의 '최순우 옛집'에서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쓴 미술사학자 최순우가 머물렀던 이곳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향한 그의 안목과 한국 미술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다. 근대 종교사의 흔적을 품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역시 성북동의 역사적 풍경을 이루는 장소다.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이 머물렀던 공간은 경건한 분위기를 더한다.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인근 성북동 양조장 거리에서 야행의 흥취를 더할 체험 부스와 공연도 이어졌다. 드라마 〈정년이〉의 실제 모델이자 여성국극 1세대 조영숙 명인과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보유자 이생강 명인 등의 국악 공연이 거리를 울렸다. 한성대학교 동아리 '탈패'는 풍물 가락으로 거리의 흥을 돋웠다. 한성대학교 회화와 학생들은 근현대의 시대적 분위기와 복식을 담은 캐리커처를 그리며 관람객에게 오래 간직할 추억을 선사했다.

성북동 야행에서 느낀 역사의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청년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사진 : 황수민 기자

▲한양도성과 서울의 야경



사진 : 황수민 기자

▲한성대학교 동아리 '탈패'가 서울연극창작센터부터 메인무대까지 길놀이 이동 공연을 하고 있다.

- 1 민속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이종석 별장'
- 2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68호 '최순우 옛집'의 내부
- 3 국가등록문화유산 제655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 4 한성대학교 회화와 학생이 캐리커처를 그리고 있다.
- 5 성북동 양조장 거리에 전시된 한성대학교 회화와 학생의 작품들
- 6 관람객들이 '밤도깨비불 한지등 만들기'를 즐기고 있다.

최용석

청년들의 창업 도전 열기가 뜨겁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창업 기업은 15만 2천여 개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과정인 만큼 여러 난관이 반복된다. 이를 극복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창업을 이뤄낸 사람이 있다. 바로 본교 동문이자, '스캡처'의 대표 최용석(28)이다. 스캡처는 이용자의 스포츠 경기 영상을 촬영하고 주요 장면을 요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풋살 경기장 32곳과의 협약으로 약 3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 중이다. 이제 스캡처는 풋살을 넘어 테니스,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로 영역을 넓혀나간다. 사소한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사업으로 완성시킨 최 대표의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당신의 플레이를
'캡처' 해드립니다

사진 제공 : 최용석 대표

우연한 발견이 만든 변화

어린 시절 최 대표는 친구들과 축구를 즐겨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 선수로도 활동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프로 선수로의 도전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이후 남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학교에서 자주 축구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프로 선수를 꿈꾸기도 했었죠. 하지만 스스로 프로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선수를 그만둔 후로는 취미로만 즐기고 있죠.”

단순히 안정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던 최 대표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직접 개최한 교내 풋살 대회가 출발점이었다. 대회를 운영하던 최 대표는 자신의 경기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려는 참가자들을 마주했다. 그는 번거롭게 영상을 직접 촬영해야 하는 참가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캡처 아이디어의 첫걸음이었다.

“대학에서 대회를 직접 열며 참가자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운동 영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촬영과 편집 과정을 줄여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구장 안에 '인생네트'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최 대표는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던 '한성대학교 멋쟁이사자처럼' 등의 창업동아리 구성원과 팀을 꾸렸다. 풋살을 함께 즐기며 취미를 공유하던 친구들과 취미를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일념 하에서였다. 그렇게 최 대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동아리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일환 정도로 생각했죠.”

스캡처는 일반인이 경기 영상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 선수들은 촬영 인력이나 전문 분석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경기장에 AI 카메라를 설치해 별도의 촬영 장비 없이도 경기 영상을



사진 : 김가현 기자

▲최 대표가 '찰칵' 포즈를 취한다.

남길 수 있는 방식을 구상했다.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촬영하거나 분석해 주는 서비스는 많아요. 코치나 전문 분석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일반인이 그런 비용을 내면서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고 분석보다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어요. 동료들과 AI 알고리즘을 통해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주요 장면을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로 추출하는 기술을 실현하려고 했어요.”

초기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기술과 현장 운영 모두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AI 모델이 경기의 주요 장면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두 시간가량의 경기 영상에서 슈팅과 패스, 태클 등 지나치게 많은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추출되기도 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기자 최 대표는 장면을 구분하는 데이터를 직접 분류하고 모델을 반복해서 학습시켰다. 경기장마다 다른 촬영 환경에 대응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처음에는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을 최대한 많이 추출했어요. 그런데 두 시간짜리 경기에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원하는 장면을 찾기 어려웠죠. 어떤 장면이 실제로 의미 있는 하이라이트인지 기준을 세우고 데이터를 직접 분류해 AI 모델을 계속 학습시켜야 했어요. AI를 활용한다고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최 대표는 구상한 초기 모델을 교내 풋살 대회에 곧바로 적용했다. 이후 이용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

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기술 구현과 영상 제공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영상 콘텐츠에도 구매 수요가 나타나는 것을 본 최 대표는 이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아리 프로젝트로 시작한 서비스를 창업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초기 모델을 대회에 적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인스타그램에 스캡처를 통해 얻은 영상을 직접 게시하는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할 거라는 들었어요. 단순히 만들어 보는 데서 끝내지 않고 계속 운영해 보고 싶었죠.”

창업을 결심한 최 대표는 초기 모델을 곧바로 정식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스캡처를 창업한 이후에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대학 내의 창업 지원 공간과 프로그램도 활용했다. 창업 공간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등 지원받은 자원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을 이어가며 AI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경기 영상에서 주요 장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직접 분류하고, 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모델을 반복해서 개선했다.

“AI 모델은 처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기 영상을 확인하면서 어떤 장면을 제대로 잡아내고, 어떤 장면을 놓치는지 계속 살펴봐야 하죠.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분류해 학습시키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모델을 반복해서 업데이트를 했어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지속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술도 계속 발전시켜 나갔죠.”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스캡처의 이용자도 약 3만 명으로 늘어났다. 별도의 촬영 장비 없이 경기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호응을 얻었다. 홍보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용자가 자신의 경기 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스캡처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이를 본 경기장 운영자가 도입을 문의하기도 했다.

“직접 광고비를 투자해 홍보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자신의 경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장 운영자가 그런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경기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도 생겼어요.”

그러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동반됐다. 바로 카메라 설치부터 영상 처리, 서버 운영 등에 필요한 유지비용이었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경기장을 관리해야 했지만 신생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 대표는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처음에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니 카메라 설치비부터 서버 유지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비스를 계속하고 싶어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멈춰야 하잖아요.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대표는 정부와 대학의 창업 지원을 활용해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기장이 늘어날 때마다 서버 유지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AI 영상 처리 모델을 경량화했다. 직접 맡았던 카메라 설치와 유지보수도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이기도 했다.

“초기에는 일단 버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다고 경기장이 늘어날 때마다 서버 유지 비용도 계속 증가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장이



▲스캡처 이용 절차가 안내된 광고

몇백 개가 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인프라를 경량화하는 데 신경 썼어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용기

최 대표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최 대표 역시 처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회사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 풋살 대회에서 서비스를 시험하고 이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한 뒤 사업화를 결정했다. 그는 서서히 경험을 쌓으며 가능성을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대부분 큰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하고 싶었던 점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시도해 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최 대표는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제공하는 지원 사업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작은 창업 동아리에서 시작해 창업 공간과 캠퍼스타운 사업을 거쳐 창업을 해낸 스캡처처럼, 대학의 인프라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정부나 대학에서 진행되는 창업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시작하기 어려운 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창업하면 밖에서 완전히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수월해요. 대학생 신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학교 안에서 같은 팀원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퀄어스, 세계를 다시 구획하다

지도의 눈속임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지도는 세계의 크기를 제대로 담고 있었을까? 지난 9월 4일 유엔 총회에서 ‘이퀄어스(Equal Earth) 도법’의 사용을 권장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퀄어스 도법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메르카토르 도법과 달리 지도상에서의 면적 왜곡을 줄인 지도 제작법이다. 이퀄어스 도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 면적의 왜곡을 줄였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자.

세계지도는 3차원 구 형태인 지구를 2차원 평면 위에 옮긴 결과물이다. 사용하는 도법에 따라 대륙과 바다를 지도에 표기하는 과정도 상이하다. 어떤 도법을 써도 왜곡은 불가피하다. 3차원인 지구의 곡면을 2차원인 평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표면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변형이 발생해 각도나 면적의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세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법은 ‘메르카토르 도법’이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세계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각 도법’을 사용하는데 정각 도법은 지구상의 각도를 지도에서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면 방향과 국지적인 지역의 형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원통형 투영법’도 쓰인다. 원통형 투영법은 지구를 원통 모양의 종이에 감싼 뒤, 지구 본 내부에서 빛을 비춰 지표면의 모습을 종이에 투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선은 일정한 간격의 수직 선으로, 위선은 경선과 직각으로 만나는 수평선으로 표현된다. 해당 구조는 지구상의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할 수 있지만 실제 지구의 곡면을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면적 왜곡이 발생한다. 최진무(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투영 과정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표면이 지도상에 넓게 투영돼 실제 면적과 지도상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구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경선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지만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든 지도에서는 고위도로 갈수록 위선 사이의 간격을 넓힌다. 고위도의 경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고위도 지역의 대륙이 실제 면적보다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한 지도에서 그린란드와 아프리카의 면적이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프리카가 그린란드보다 무려 14배나 더 큰 것이 일례다. 이상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위선의 간격을 더욱 떨어뜨리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왜곡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면적 왜곡은 ‘축척계수’를 통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축척계수는 지구 표면의 실제 길이에 비해 지도상 길이가 얼마나 확대되거나 축소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축척계수가 커지며 가로·세로 방향의 축척계수가 같아 면적 확대율은 축척계수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적도에서 축척계수는 1로 면적 확대율도 1배지만, 위도 80도에서는 축척계수가 약 5.76으로 면적 확대율이 약 33.16배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륙과 해안선의 윤곽을 그리면 메르카토르 도법 세계지도가 완성된다. 황철수(경희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경선 간격을 일정하게 표현 하면 동서 방향으로 확대된다”며 “각도를 보존하려면 남북 방향도 같은 비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면적보다 각도를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항해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도에 나타나는 각도로 항해하면 실제 지구에서도 그 방향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인철(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정각도법이기에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면적 왜곡이 심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러한 면적 왜곡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 면적이 아프리카보다 작은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와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것이 그 일례다. 이로 인해 대륙과 국가의 실제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가 바라볼 세계

이퀄어스 도법은 메르카토르 도법과 달리 면적을 보존하는 도법인 ‘정적 도법’이다. 지구상의 실제 면적 비율을 유지하면서 대륙의 형태가 지나치게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면적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도의 형태와 배열을 함께 고려한 것이 이퀄어스 도법의 핵심이다.

이퀄어스 도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도와 경도를 ‘평면 좌표’로 변환해야 한다. 지구상의 위치는 위도와 경도로 나타나지만 평면 지도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x·y 좌표를 사용한다. 즉 위도와 경도를 지도상의 좌표로 바꾸는 수식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면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보조각’을 구해야 한다. 보조각은 경선과 위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식에 실제 위도를 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극의 실제 위도는 90도지만 이퀄어스 도법에서의 보조각은 60도로 변환된다. 이상일 교수는 “실제 좌표를 변환 없이 대입하면 형태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보조각으로 실제 좌표의 변환이 끝난 후 위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특정 수식을 구성한다. 이때 수식의 계수에 따라 위선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의도한 지도 형태에 맞게 계수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지점에서 계산한 위치와 기준 위치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활용되는 것이 ‘최소제곱법’이다. 최소제곱법은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해 가장 적합한 값을 구한다. 이퀄어스 도법에서는 실제 지구상의 위치와 이를 지도에 투영했을 때 나타나는 위치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된다. 이상일 교수는 “시각적으로 가장 좋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각과 수식의 계수를 설정하면 위도에 따른 지도상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경도에 따른 위치 계산을 결합해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 평면상의 x·y 좌표를 산출하는 최종 수식이 완성된다. 이 수식에는 연구진이 설정한 면적과 배열 등의 조건이 반영되는 원리가 적용된다. 조대현(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산출된 좌표들의 위치를 연결하면 지도가 완성된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컴퓨터에 적용해 지구상의 각 지점에 해당하는 위도와 경도를 입력하면 평면상의 x·y 좌표가 계산돼 지도 위에 배치된다. 컴퓨터로 그래프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이퀄어스 도법 세계지도가 완성된다.

이퀄어스가 만들 미래

이퀄어스 도법은 기존의 왜곡돼 있던 지도를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르카토르 도법보다 상대적 크기를 실제에 가깝게 표현해 그동안 면적이 작아 보였던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지지를 얻었다. 아프리카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인 ‘아프리카 노 필터(Africa No Filter)’와 ‘스피크 업 아프리카(Speak Up Africa)’ 등도 이퀄어스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퀄어스 도법의 도입은 남반구 저개발 국가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번 결의를 통해 이퀄어스 도법은 더 널리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에서 1만 곳의 학교에 지도를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황 교수는 “이퀄어스 도법을 통해 세계를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복잡한 지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상황에 알맞은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법마다 보존하는 지리적 특성이 다른 만큼, 지도의 제작 목적에 따라 적합한 도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통계지도”와 “주제도”에서는 면적의 왜곡이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특정 도법이 반드시 옳은 도법이라거나 모든 지도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지도 : 통계자료를 지도 위에 표현해 지역별 분포나 차이를 보여 주는 지도

**주제도 : 인구·민족 등 특정한 부문을 주제로 해 만드는 지도



▲이퀄어스 도법을 이용한 세계지도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때갈만 좋은 융합의 민낯

융합이 대세다.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융합을 내세운 교육과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부설연구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연구소의 양적 증가가 실질적인 융합연구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학이 지식 탐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다. 기존 학과 중심의 연구 체계를 넘어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며 대학의 학술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기구인 만큼 설립과 지원, 연구과제 설정 등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관리된다.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부설연구소는 2020년 5,457개에서 2024년 5,900개로 8.1%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소의 증가세가 연구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를 수행할 인력부터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상술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부설연구소의 평균 전임연구원 수는 약 0.9명에 그쳤다. 연구소 한 곳당 전임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연구소의 수가 늘어나는 동안 연구를 지속하고 발전시킬 인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본교 역시 다르지 않다. 본교의 부설 연구소 20곳 가운데 19곳에는 전임교원이 없다. 연구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통폐합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리 체

제도 미흡하다. 본교 학칙은 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설립 이후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과제 설정, 성과 관리 등을 포괄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보다 설립 자체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융합연구는 단순히 여러 학문 분야를 한데 모으는 일이 아니다. 하나의 질문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학문이 관점과 방법을 나누는 과정이다. 대학은 다양한 전공과 연구 인력이 모이는 지식의 상아탑인 만큼 서로 다른 학문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연구소의 인력 확보와 연구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역시 대학의 자율성에만 기대지 말고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연구소가 단기적인 과제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질문을 발굴하고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융합을 내세우면서 정작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를 융합이라 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뒷받침 없는 융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제는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서로 다른 학문이 만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혜윤 편집국장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전국대학노조가 한국어 강사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일 열었다. 노조는 한국어 강사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토록 요구했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정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임시로 배치하고 있다. 가르침의 질보다 강의할 사람의 수를 채우는 데 급급한 현실이다. 강사는 빈자리나 메우는 인력으로 여기는 척박한 토양에서 양질의 교육이 꽃필 수 있을까. 대학은 땀질식 인력 운용에서 벗어나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황수민 기자 breath_min@naver.com

■ 기자수첩

‘암살’ 당한 비판의 가치

개봉 3주 차에 일부 상영관 상영 중단. 영화 〈암살자(들)〉의 얘기다. 해당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과 당시 유신 정권의 언론 통제에 맞선 언론인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 개봉 후 일부 단체는 해당 작품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을 향해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간 우리 사회가 견지해 온 창작의 자유와 개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창작물은 언제나 다양한 해석과 평가의 대상이었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은 창작물을 둘러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작품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과 논박이 아닌 특정 개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형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

서 영화 출연을 문제 삼는 집회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판’의 본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비판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고 그 이면의 한계와 모순을 살피는 과정이다. 특히 청년에게 비판은 기존 질서를 당연시하지 않고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며 자신의 신념과 판단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성찰을 끌어내기도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주장과 자신의 판단을 함께 검토하며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자세라는 의미다.

영화는 이러한 비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영화가 허구의 서사와 인물의 삶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

문이다. 관객은 인물의 선택과 갈등을 따라가며 사회가 당연하게 여겨 온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자신의 판단을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그 부분이다.

대중은 비판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타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서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일 테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옹고 그림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자신의 판단만을 옳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비난이 아닌 올바른 비판이 오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견해가 대화와 성찰로 이어지는 공간으로 극장이 다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이예원 기자 ywpass@naver.com

■ 낙산에 올라

문화를 나누고 마음을 잇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소개해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에게 한국 문화는 너무나 익숙하다. 늘 글로 배우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느껴왔기에, 누군가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IFICE)이 주관하는 K-컬처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화, 한국무용, 뷰티, 시각디자인 등 4개 전공의 한성인들이 각자의 전공을 통해 한국 문화를 현지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자리였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나는 전통 관모 페이퍼크래프트와 전통 문양 열쇠고리 체험을

준비해 제작 방법과 한국적인 요소를 설명했다.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아 긴장했지만, 참가자들은 서툰 설명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함께 만들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한 할머니였다. 삿포로 맥주 축제에서 우연히 한국인 친구를 사귀 뒤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분이였다. 행사장의 모든 부스를 찾아 체험 하였고, 한국무용 공연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다. 다음 날 다시 행사장을 찾아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서툰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서울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에 남았다.

익숙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문화교류의 시작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화를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함께 경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른다.

전공과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한국을 소개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다양한 전공을 통해 한국 문화의 여러 모습을 한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었고, 나 역시 디자인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삿포로에 갔지만, 우리가 전한 것은 문화에 대한 설명만은 아니었다. 직접 보여주고 함께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각자의 전공으로 문화를 나누었던 이번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서지민(CT 2)

■ 의화정

영어로 세계를 만나고, 우리를 발전하다

명동에서 길을 묻는 외국인 여행객, 고궁에서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이제 이런 풍경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팝송과 영화, 뉴스와 책에 담긴 영어를 통해 세상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국의 음악과 음식, 역사에 매료되어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줄 차례이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경험은 흥미롭다. 평소 당연하게 쓰던 말도 다른 문화권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고유의 정서인 ‘정’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단순히 비슷한 단어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우리는 ‘정’이 쓰이는 맥락과 인간관계, 일상의 모

습까지 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배웠던 언어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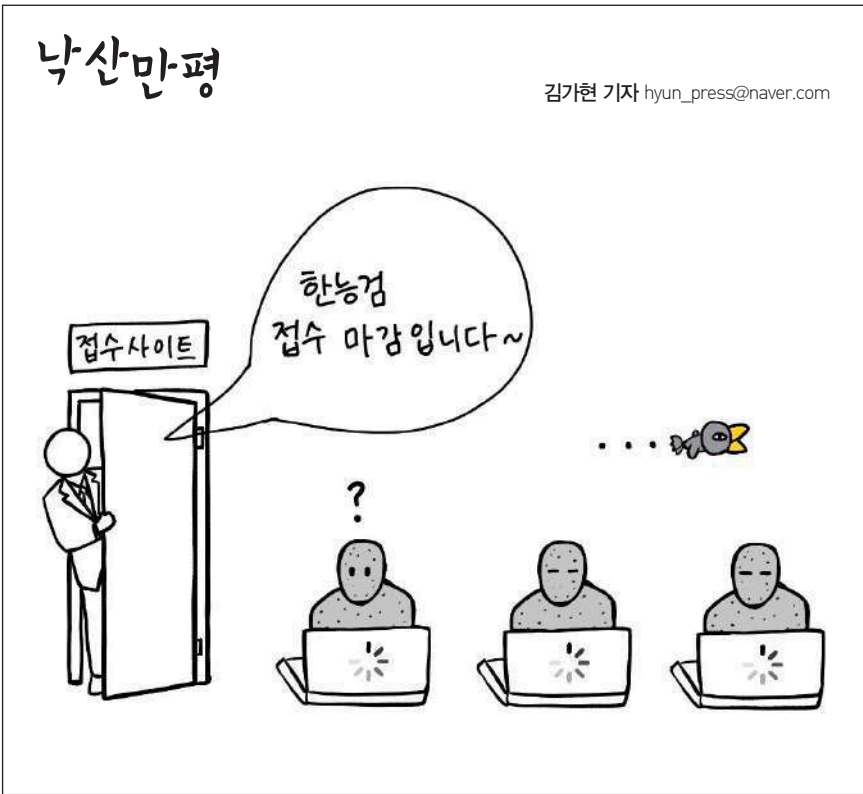
영어 학습은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토의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 간다. 함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고, 일상을 나누는 활동 속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떨고,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흥미로운 경험 속에서 영어를 직접 사용하며 자신감을 키우게 되고, 교수자 역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된 시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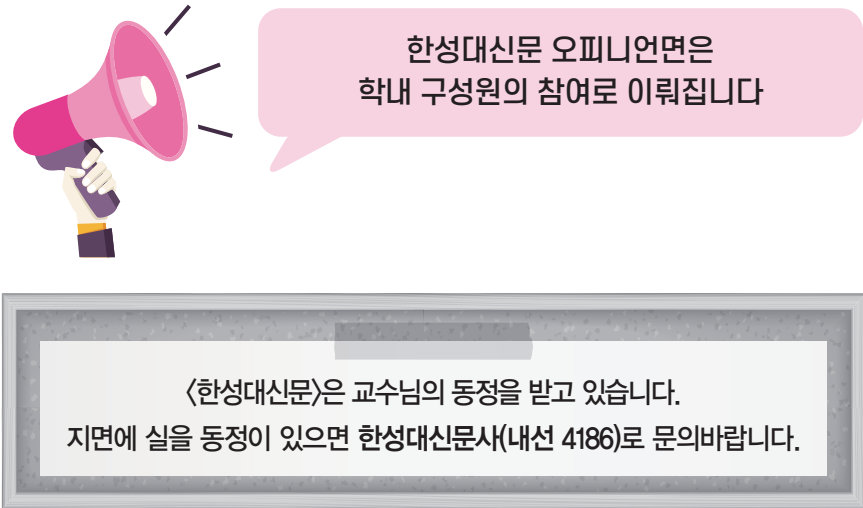
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어 공부라 단순히 시험과 취업을 위한 준비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좋아하는 영어 노래 한 곡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서툴게 건넨 영어 한마디가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영어로 세계를 배우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 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어 실력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우리 자신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심경미(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김가현 기자 hyun_press@naver.com



당신의 문장이
피어나는
자리

제41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2026.09.21. ~ 10.26. 오후 6시



공지사항